

보도자료

작성일시	2022. 06. 16. (목)	담당단체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일시	2022. 06. 17. (금) 오후 1시 30분	담당자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송효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복지관으로 만든,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발달장애인 특화’ 분야 철회 요구 기자회견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발달장애인으로부터 나온다”
“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공간이다”
“올화통이 터진대 발달장애인 우습게 보는 서울시는 사과하라!”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 주최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
- 순서
 - 사회: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여는말인: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장)
 - 규탄발언 1: 정연재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장)
 - 규탄발언 2: 송지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센터장)
 - 연대말인: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소형민(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남태준(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 최문영(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 활동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념과 발달장애인의 주체성, 동료성을 모두 부정한 것**에 분노하며, ‘발달장애인 특화’ 분야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자 공고를 통해 ‘발달장애인 특화’ 분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IL센터)를 공고했습니다.
- 문제는 서울시가 내건 ‘발달장애인 특화’ IL센터의 조건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특화 조건으로 ▲기본사업의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발달장애인 비율 50%이상 ▲월평균 발달장애인 이용자 30명 이상 ▲장애인 채용 직원 중 발달장애인 비율 50%이상 ▲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50%이상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 특히, 서울시는 이번 ‘발달장애인 특화’ IL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면심사 결과에서 선정된 4개기관 중에 발달장애인이 센터장인 기관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 이런 서울시의 기준과 판단은 사실상 발달장애인을 지원받아야 할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만 규정한 것이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동료성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로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배제되고 분리되어 살아온 당사자의 차별을 말하고 권리를 외치며,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활동한 모든 경험을 무시당했음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핵심은 ‘당사자 성’과 ‘자기주도와 결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프로그램 참여자, 서비스 이용자, 재할 혹은 훈련의 대상 등으로만 여기는 사회를 비판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동료들과 나누며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원을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 자립생활의 이념입니다.
-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이념 그 자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8년, 소수육성형발달IL센터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발달장애인IL센터의 위탁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IL센터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3년 IL센터 평가에서도 발달IL센터 운영 기관의 어려움을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 서울시의 이런 행태에 더해 이번 ‘발달장애 특화’ IL센터 자격기준은 센터장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역할과 동료상담가의 활동을 부정한 것이며, 발달IL센터의 존재와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차별한 것입니다.
-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센터장’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에 맞서 싸우고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동료상담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광진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3개 기관은 당장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발달장애인 특화’분야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 기자회견문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발달장애인으로부터 나온다.

서울시는 특화 조건을 즉각 철회하라.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아래 장애인자립센터)는 장애인의 당사자성과 동료성을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장애인 자립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프로그램 대상자, 이용자, 수혜자, 재활 혹은 훈련의 대상 등으로만 여기는 기존 사회를 비판하며, 우리가 살며 겪어온 사회적 장애의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원을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2년 현재 공모, 심사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 분야’ 장애인자립센터는 우리의 운동을 부정한다.

◎ 서울시 내 발달장애인지립생활센터(아래 발달장애인지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센터장과 동료상담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당사자가 중심이 된 권리옹호와 자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17년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지립센터는 당사자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발달장애인을 삶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인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권리와 차별을 알고, 동료성을 쌓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 이 과정에서 우리 센터들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평가구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센터의 어려움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않았고, 센터 평가 개편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지립센터에 대한 고려와 존중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 분야”의 등장은,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센터와 센터장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발달장애인 자립운동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표현이다.

◎ 우리 센터들이 개소하기 전, 어떤 자립생활센터도 발달장애인을 센터장이나 동료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서울시 내에 56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센터장과 동료상담가가 발달장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 세 개뿐이다. 이번 특화 공모에서 직원의 50%를 발달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있지만, 지금의 발달장애인자립센터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센터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서울시에 묻는다.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센터가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공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특화센터가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자립운동의 이념과도 맞지 않고, 굳이 장애인자립센터가 진행해야 할 역할도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다.

◎ 서울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이든 “발달장애인”과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는 우리 발달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센터 운영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가질 수 없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일해도 같은 힘을 가진 동료로 지낼 수 없다. 특화 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센터장의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 안의 발달장애인은 이용자로 머물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특화 센터는 필요 없다. 서울시의 이번 공모는 이제 겨우 시작된 발달장애인 운동을 짓밟는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한 무시를 인정하고, 이번 공모의 ‘발달장애인 지원 특화’ 조건을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발달장애인자립센터를 확대하라!

하나,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자립센터에 맞는 평가지표와 운영매뉴얼을 제시하라!

하나, 서울시는 발달장애인과 당사자운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만나 대화하라!